

무인 택시, '움직이는 러브호텔' 우려



▲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무인택시 크루즈. 사진=EPA/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는 무인 택시(로보택시)가 24시간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로보택시가 '움직이는 러브호텔'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매체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전날 로보택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용자와 인터뷰한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승객은 로보택시에서 성관계를 세 번 가졌으며 "내가 선구자(trailblazer)인 것 같다. 미국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재미있다."고 자랑했다.

이런 경험담은 수년 전 로보택시가 성관계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관광 연구 연감' (The Annals of Tourism Research)이라는 저널에 실린 한 보고서는 "시간 단위로 이용되는 호텔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GM의 자율주행차인 크루즈와 구글의 웨이모는 2022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야간에만 로보택시를 운행해오다 지난 10일 24시간 운행 허가를 획득했다. 크루즈는 밤에는 300대, 낮에는 10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웨이모는 250대를 운행 중이다.

크루즈와 웨이모 차량에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다. 이런 기기는 승객 안전과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마이크의 경우 탑승자 지원 통화 중에만 활성화된다고 이들 기업은 설명했다.

주거비용 폭등에 노숙자 급증

미국에서 노숙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에 지원됐던 각종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데다, 세입자 퇴거 금지 등 안전판 역할을 해준 보호조치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디지털타임즈'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국의 노숙자 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정부가 노숙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WSJ이 300여개 노숙자 관련 기관 자료를 취합한 결과, 현재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해 본 사



▲ LA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 텐트촌의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람은 57만7,000명에 이른다. 연말에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HUD)가 발표하는 노숙자 관련 통계에는 WSJ 통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노숙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 급증의 이유로는 주거비용 폭등이 가장 먼저 꼽힌다. 팬데믹 기간에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세입자가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조치가 중단되자 경제적 약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주요 도시에 멕시코 국경을 통해 건너온 이민자들이 늘어난 게 노숙자 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소도시에서 사라지는 산부인과

미국 시골·소도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들 지역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있다.

11일 '한국경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의료기업 OSF 헬스케어는 일리노이주 폰티악에 있는 산부인과가 다음달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트리니티 헬스는 뉴욕주 트로이와 오리건주 베이커시에서 출산 관련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오하이오 대학병원들도 애슬랜드스에서 출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이 산부인과를 문을 닫으면 응급실에서 이 업무를 대신해야 한다. 문제는 응급실 근무자 모두가 분만 업무 경험이 있는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자동



▲ 미국 시골·소도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급격히 줄었다. 사진=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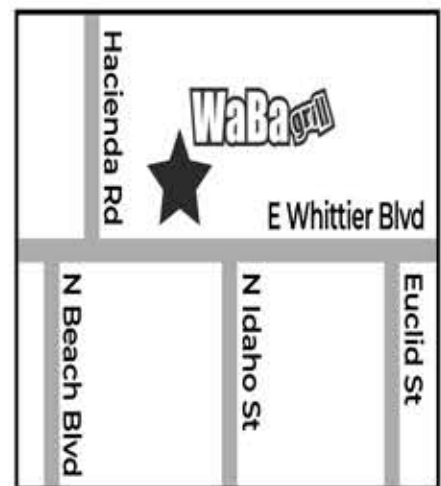
차로 먼 거리를 이동하기엔 산모와 아이가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종합병원이 연이어 산부인과 문을 닫는 건 저출산 때문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6.8%로 초고령사회에 다가서고 있다. 가입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은 1960년 3.65명에서 2020년엔 1.64명까지 떨어졌다.

산부인과 진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면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이 위협에 처하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 사망한 임산부는 1,205명으로 2020년(861명)보다 40%가량 늘었다. 이는 1965년 이후 56년 만에 최고치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